목포 통장 559명 단체 상해보험 든다

市, 내년부터…대 주민 서비스 개선·사기 진작 시책 추진

목포시가 시정의 최일선 보조조직인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목포시는 통장들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2010년 하반기부터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장들은 앞으로 본인 사망을 비롯해 상해 후 장애·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받게 된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7만 원선이다.

또 시는 통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1박2일 동안 개최하고, '우수 통장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통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동 주민센터에 보급해 특색에 맞게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목포시가 이 같은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6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이 추진되면 통장들의 자긍심을 제고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의 보조역할 수행과 함께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은 지난 9월 21일 제 280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통장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해 안정적인 여건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 목포시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목포시 관내 22개 동에는 559명(남자 212명, 여자 347명)의 통장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해남군·진도군·함평군 등 7곳이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구기자 수확철…"키운 보람있네" 18일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빨갛게 익은 구기자를 수확하는 진도지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요즘 수확이 한창인 구기자는 kg당 1만7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신안문화원 '한국 문화원상' 수상

'인력 양성·교육'·'향토사 발굴·연구' 2개 부문

신안문화원(원장 김강민)이 2009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문화원은 최근 2009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심의 결과 '인력양성 및 교육'(천일염 장인 발굴교육 사업)과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등 2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천일염 장인 발굴교육' 사업은 지난해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된 것을 계기로 신안 천일염의 전통성 유지와 생산에 있어서 장인정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와 전통문화를 접목시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부문상을 수상한 신안문화원 최성환 사무국장은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을 발간하고, 하의도의 재야학자이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스승인 초암 김연 선생에 대한 학술연구를 실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가 인정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항만청,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단기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해운·항만, 물류 관련기관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 물류분야의 기초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항만 물류 전문인력 단기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목포해양대에서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다. 주요 교육내용은 목포항의 해운항만 물류동향, 항만 물류관리, 물류전략, 항만하역 등이며 수료생에게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단장 명의의 공동수료증을 준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바다, 더 맑게 더 푸르게'

진도군, 57억 투입…폐기물 수거 총력

진도군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도군은 "바다 청소 우수어촌계 인센티브제 시행, 양식어장 정화, 해양 폐기물 수매·처리, 공공근로 해안가 쓰레기수거 사업 등을 통해 해안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총 57억원을 투입, 해저에 침적된 폐기물 1천600t을 수거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 양식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어업인 스스로 가꾸고 살린다는 취지로 '바다청소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현재까지 400여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 쓰레기를 항구로 수거해 폐기하는 등 어로해역의 해양환경 보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자전거 종합처리센터 유달 경기장내 설치

목포시가 '자전거 종합처리센터'를 유달 경기장 내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자전거 수리에서부터 교육과 정보를 접하며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공간인 자전거 종합처리센터를 최근 설치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목포지부(지부장 김종근)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에서는 점검과 수리는 물론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과 함께 무상대여(20대·1시간)도 가능하다.

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저소득층에 무상 대여하거나 시민에게 매각하는 '방치 자전거 처리 사업'도 추진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신항~中 상하이' 항로 재개

목포 신항과 중국 상하이(上海)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가 중단 1년만에 재개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9월 중단된 목포신항~중국 대풍항~상하이항을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상하이인천국제도륜(유)에 의해 오는 24일 재개설된다고 18일밝혔다.

인천국제도륜은 7천t급 선박인 린위엔호를 매주 한차례 이상 투입해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전제품을 연간 1만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 수송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인천국제도륜, 삼성전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 신항만㈜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